

아버지의 회초리

그 택배가 집에 도착한 것은 추석 전날이었다. 회사에 마무리할 일이 남아 있던 나는 명절 전날임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퇴근했다. 저녁 때 집에 오니 어머니는 내 앞으로 택배가 왔다고 고급스러운 보자기 포장인 상자를 내밀었다.

보낸 사람은 K기업 김명수 부장이었다. 김 부장은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주요 거래처 담당이었다. 김 부장 정도의 직급은 주로 부서의 과장급들이 상대하고 있어서 신입 사원인 나와는 안면 정도만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한테까지 선물을 보내다니 뜻밖이었다. 그때서야 얼마 전 주소를 묻는 문자에 무심코 답신한 것이 떠올랐다. 이런, 선물을 보내려고 그랬던 거군. 다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부서 사람들 다 받겠거니 생각하며 포장을 풀었다.

상자를 열어 보니 값이 꽤 나감직한 한우 갈비 세트가 들어 있었다. 내가 상자를 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는 특상품 한우 갈비가 들어왔다고 무척 좋아했다.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참 오랜만에 보았다.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데 다니니까 명절에 이런 것도 들어온다고 갈비 상자를 안고 냉장고 쪽으로 가면서 웃음 띤 표정으로 말했다.

“잘 먹을게, 아들~.”

어머니가 기뻐하는 걸 보니 덩달아 나도 으쓱한 기분이 들었다.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세 살 위의 누나, 그리고 내가 있다. 아버지는 고지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다. 융통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항상 원칙을 따지는 사람이다. 젊을 때부터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오로지 가족만을 위해 일한 분이라 친척들은 아버지를 본받으라고 얘기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어머니는 순종적이고 다정다감한 전통적인 여인으로 언제나 좋은 것은 다른 식구들에게 양보하신다.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늘 잘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를 어딘지 모르게 어려워한다. 누나는 작년에 결혼했다. 일 년 남짓 됐으니 아직 신혼이지만, 연애를 오래 해서 그런지 한 십 년쯤 된 부부 같아 보인다. 맞벌이하느라 아직 아이는 없다. 나는 올 초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수의 기업 구매 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다음 날 점심때였다. 누나와 매형이 와서 식구들은 밥상 앞에 앉았다.

“박 서방, 그대 사돈 어르신들은 무고하시고?”

“네, 덕분에 건강들 하세요.”

“사돈댁에선 차례만 지내고 간다고 섭섭해하시지는 않던가?”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아침 먹자마자 가라고 하시는 걸 몇 시간 더 놀다 왔는걸요.”

젓가락을 열심히 놀리며 누나가 내게 묻는다.

“상우야, 회사는 좀 어때? 힘들진 않고?”

“힘들긴 하지만 할 만한데, 구매 파트라 그런지 일이 많긴 많더라.”

“처남은 든든한 직장도 잡았겠다, 이제 여자만 잡으면 되겠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참한 여자 있으면 자네가 좀 소개해 주고 그래. 재가 숙맥 같아서 아직 여자 친구도 없어.”

“아이고, 어머니. 처남 얼굴을 좀 보세요. 저 인물에 여자 없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모르긴 몰라도 처남 좋다고 쫓아다니는 아가씨 여럿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요 문밖에도 한 명 와 있을지 모르죠.”

매형의 농담에 식구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평화로운 명절 오후였다. 그러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갈비를 먹던 아버지가 하나를 더 집어 와 앞접시에 놓으며 말했다.

“이 갈비 정말 맛있네. 이런 거 비쌀 텐데 뭐 하러 사 왔니?”

“아네요, 아빠. 저희가 사 온 거 아니에요.”

누나의 대답에 놀란 아버지가 엄마를 쳐다보자 엄마는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깔며 대답했다.

“상우네 회사 거래처에서 보냈나 봐요.”

“역시 좋은 회사 다니고 볼 일이네. 우리 집은 기껏해야 햄 선물 세트인데…….”

누나의 말은 무시하며 아버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거래처에서 받은 거냐?”

“네, K기업이라고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납품받는 회사에서 선물을 받았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명절이면 다들 돌리고 받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 감사했다고…….”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표정이 굳어지며 숟가락을 소리 나게 상에

놓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탁에 남은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느낌이었다. 대체 갑자기 왜 저러시지? 갈비 받았다고 저러시는 건가? 명절 때 선물 주고받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저리 민감하시지?

“상우, 이리 들어와라!”

안방에서 아버지의 노기 띤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망설이다 방문을 열었다. 방 가운데에는 아버지가 앉아 있고, 그 앞에 회초리가 놓여 있었다.

“너 이리 와 종아리 걷어라.”

아버지는 건조한 음성으로 담담하게 말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설마 갈비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죠?”

“그럼 너는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는 게 옳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건 관행이죠. 여태까지 늘 그래 왔던 거고, 명절 때 선물을 주고받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걸 받으면 다음에 그 회사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니?”

“아버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긴 말 하고 싶지 않다. 어서 종아리 걷지 못해!”

여태까지 이렇게 화가 난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나는 아버지가 명절 선물 때문에 이러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설득하려 해 봤지만, 결국 아버지의 위세에 눌려 종아리를 걷고야 말았다. 종아리에 닿은 회초리가 서늘한 촉감으로 다가왔다.

나는 그날 난생처음 아버지한테 회초리를 맞았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이 이를 악다문 채 그저 내 종아리만 내리칠 뿐이었다. 나는 이유도 납득하지 못한 채 그렇게 회초리를 맞고 또 맞았다.

그날 밤 누군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점심때의 그 사건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누나는 매형과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고, 난데없는 매질에 화가 난 엄마는 진작 외출했기 때문에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필시 아버지일 것이었다. 왜? 아직도 분이 안 풀려 더 때리려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너무한 것 같으니 사과라도 하려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면 저녁때가 됐으니 밥을 차려 달라는 것일까?

눈도 맞추지 않은 채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외출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너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 나랑 잠깐 나가자.”

아버지와 나는 동네 초입에 있는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다. 명절이라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을 닫았지만, 이 포장마차는 오늘도 장사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단들이 갖는 술자리는 처음이었다. 아버지는 안주가 나오기도 전에 소주부터 털어 넣었다. 평소 아버지의 음주 습관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나는 이 자리가 무척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연거푸 소주 두 잔을 마신 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상우야, 오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네 엄마도 모르는 일이다. 나에게는 평생 숨기고 싶은 과거지만, 너한테는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같구나.”

나는 말없이 고개를 주억거렸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소방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처음 주어진 일은 건축물의 소방 시설 점검 업무였다. 현장을 방문해서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정해진 안전 기준에 따라 방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지,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지도하는 일이었다. 그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기도 하고, 시설 개보수 공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그런데 소방 설비가 부실한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다 그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을 돈으로 구워삶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돈맛을 들인 것이었다. 상사를 따라다니며 술을 얻어먹고 찢러 주는 돈 봉투를 못 이기는 척 받아 챙기다 보니 그게 나쁜 거라는 인식이 무뎠던 것이었다. 게다가 아버지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은 말썽만 생기지 않으면 필요 없는 것이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어 그 달콤한 생활에 한동안 젖어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 관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런데 그 건물은 대피로가 막혀 있는 데다 소방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화재 규모에 비해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얼마 전 소방 설비 점검을 통과한 건물이었는데 말이다. 그 후 경찰 수사 결과 소방 점검 통과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건물주와 아버지의 상사는 구속되었다. 아버지는 구속은 면했지만, 벌금형을 받고 파면되고 말았다. 그 후로 아버지는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었고, 이 일 저 일을 전전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아버지는 목이 타는지 다시 소주를 입에 털어 넣고 나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알궂기도 하더구나……. 그 사건 이후 몇 년이 지나 내가 좀 늦은 나이에 맞선이란 걸 보게 되었다.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피했지만, 집에서는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선 자리였다. 다방에 들어서니 한눈에도 맘에 안 드는 아가씨가 나왔더구나. 난 대충 시간을 때우다 헤어질 생각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주변이 없어 무슨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라도 해야겠기에 그 당시에 호구 조사라고 불렀던 문답을 했었다.”

아버지는 잠시 허공을 바라보며 회상에 젖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는 지루한 호구 조사를 통해 그 아가씨가 어디 살고 있고, 고향이 어디며,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지금은 무얼 하고 있는지, 식구 수와 형제자매의 나이와 직업, 아가씨의 취미와 특기 같은 궁금하지도 않은 잡다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대화 중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다. 그건 그 아가씨의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50대에 돌아가시는 분도 꽤 있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캐물은 끝에 아가씨의 아버지가 화재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아가씨는 공허한 표정으로 무심하게 말했다.

“아시죠? H백화점 화재 사고. 그때 소방공무원들이 뇌물 먹고…….”

순간 아버지는 망치로 머리통을 세계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아, 네……. 알다마दा요. 거긴 내가 눈감아 준 바람에 화재가 일어난 바로 그 현장인걸요. 아주 잘 알지요. 내 앞에 앉아 있는 아가씨, 당신의 아버지는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나는 가장을 빼앗아 당신의 가정을 파괴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아버지는 벌금형을 받고 파면을 당했던 때 느꼈던 수치심이나 모멸감과 다른,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후회와 죄책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아가씨에게 사죄하는 대신 평생을 이 여자에게 속죄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것만이 자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후 결혼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아버지의 태도에 아가씨와 그 가족들은 미심쩍어했지만, 결국 결혼은 성사되었다.

“짐작했겠지만 그 아가씨가 바로 네 엄마다. 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엄마와 처갓집 식구들을 대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난 쓰레기였다. 젊은 시절 그 작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온 이 애비를 봐라. 네가 거래처에서 갈비를 받고 봉투를 받고, 나중엔 더 큰 부패 사건에 휘말려 인생을 망치는 꼴을 볼 수 없어 오늘 난 처음으로 회초리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내가 오래전에 맞았어야 할 회초리밖에 없구나. 난 그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미련하고 불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편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작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큰 것이었고, 크게 생각했던 것이 작은 것이었다는 걸. 상우야! 떳떳하다는 것은 세상을 버틸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남들을 보지 말고 너 스스로를 돌아보거라. 그러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길이 아닌지 알 수 있을 거다.”

그날 아버지와 집으로 돌아오며 난 아버지의 어깨가 그렇게 넓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젊은 날의 실수를 거울삼아 마침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 만회하려 한 한 남자의 모습이 내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난 슬며시 그 남자의 손을 잡았다.

여기까지가 아버지와 내가 공유하고 있는 비밀의 이야기다. 그날 아버지와 단둘이 가진 술자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추석이 지나고 얼마 후 아버지는 덜컥 자리에 눕더니 결국 이듬해 봄빛이 곱던 어느 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이 일은 영원히 비밀로 간직하려 한다. 그건 아버지의 부탁이기도 하거니와 그분의 인생을 건 속죄를 지켜 주고 싶어서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젊은 날 저지른 잘못을 스스로 내린 종신형을 통해 참회하셨다. 그리고 내가 그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놓으셨다. 종종 늦은 밤 퇴근길 동네 초입의 그 포장마차에 불이 켜져 있을 때면 나는 불쑥 포장을 들추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면 아버지가 거기 앉아 계시다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술잔을 내밀 것만 같다.